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新聞代價 壹部(朝夕刊)金五錢 壹個月先金壹圓 參個月先金貳圓九拾錢 六個月先金五圓七拾五錢(郵稅本社負擔)
廣告料 五號拾四字壹行壹圓廿錢 四號九字 ... 指定料五割增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在滿朝鮮人問題 ―僑居證과商租問題―

一

二千三百萬의朝鮮人大衆의前途如何는 다만朝鮮人으로서의絶大한問題일뿐아니라 東洋的으로一重大한問題이다 그는日本人에게 또中國人에게 아울러重大한一懸案이다 그러나朝鮮人의問題를平面的으로區分할때에 爲先三段으로大別할수잇다 二千萬을算하는國內의朝鮮人은 이곳朝鮮人問題의本源的인者어니와 前後渡航者二十餘萬에達한日本에잇는朝鮮人의將來가一問題이오 滿洲의全區域으로부터 西伯利亞各地에繁衍되는三百萬朝鮮人의將來는 또한매우重大한一懸案이다

二

朝鮮人의靑年들은無産者의團結을부르짓고 現社會制度를云爲하는데 朝鮮의統治者들은赤化의 防止를劃策하고 『治安의維持』를爲한다 그러나內國二千萬의朝鮮人이 날로다만無産者化할뿐아니라 日本에잇는數十萬의朝鮮人은 이미窮極한無産者이오 滿洲西伯利亞에分布된三百萬의朝鮮人이또한모다無産者이오 無産化하고 또는無産者의祖國의一部의市民을짓고이는것은 누구나이朝鮮人의將來를論하는者가再見또三嘆하지아니할수업슬現代가맛겨준一大懸案이다

三

前者大連에서滿鮮記者大會라하는者開催되어 在滿朝鮮人問題가日本人에依하야提議되매그는몰이어冷笑中에埋葬되고말엇다 이를嘲笑하는某中國人記者는 『日本人은朝鮮에잇는朝鮮人을問題로하지안코滿洲에잇는朝鮮人을云爲하고잇스니 매우배人속便한짓이라』고이르는자못頂門一針인感이잇섯다 그러나吾人으로말케할진대日本人은朝鮮에잇는朝鮮人에對하야可能한最大限度의拘束 抑壓을일삼을뿐아니라 日本에잇는朝鮮人으로부터滿洲에잇는朝鮮人에外지오직不及을저어하면서 그拘束과抑壓을劃策하야거의餘蘊이업고저하는바잇다 前者日中兩關係要路의人物에依하야作成된 滿洲朝鮮人取締를爲한 日中協定辦法가든것은 그의代表的인一例이다 이리하야在滿百餘萬의朝鮮人이 그의商租禁止에因한經濟的驅迫과함께 바야흐로二重의大苦痛을 밧게되는것이니이는世間의頂天立地한朝鮮人이골고로忍惟하야말지안는問題이다

四

滿洲朝鮮人의取締를爲한 所謂僑居證書問題는 그의一代의名案?인 産米增殖政策과함께아마故下岡氏의二大遺績이겟지! 此人이제이미他界의人을지어그骨肉이 아직식지아니하엿스니 吾人은잠간그에對한批評을保留한다 그러나何人의發案이거나斡旋인것을勿論하고 이僑居證書의制度는 곳朝鮮內에서行使하는羈絆과箝束의惡例를朝鮮人의移住地인滿洲에까지延長하자하는心事에서나옴은 이제喋喋解說함을要치안는問題이다 每年每戶에僑居證書一枚를要하되그를缺한者에게 違法罪로處罰하며이와關聯하야다시遷移證旅行證書 및相互保證과連坐法等의煩苛한法定으로써하야 彼等一擧手一投足을 모다監視拘束할뿐아니라 이로因하야中國의 下級吏員으로 더욱더욱朝鮮人의 侵凌壓迫, 肆行케하니 이는곳日本의國籍에關한理由로서 呻吟하는朝鮮人이 다시그의惡法의延長 또는交換에因한徹底한拘束으로因하야 이내자못踊躇하야自安치못하게되는바이다

五

商租禁止에因하야朝鮮人의밧는바苦痛은 이제重說코저아니한다 이에關하야 吾人은벌즉朝鮮人의日本脫籍 및中國에改籍할 必要를說하엿섯다 世間의識者中에는자못그見解를달리하는바이거니와이商租禁止및僑居證書의問題는在滿百餘萬의朝鮮人으로 오즉日本의國籍에屬함으로因한兩極의害惡만 편벽되히밧는 가장深骨的인現狀이다 吾人은在滿百餘萬의朝鮮人의生活安定의將來를爲하야는斷然히日本에脫籍과 中國에改籍으로서 이兩極의害惡을脫離키를提言하는바이다 그리고이것이日本의國籍法의變改에關聯되는바잇슴은勿論이다 筆者吉林의來信이잇서改籍한朝鮮人의自治및公權分與의實現을傳하니吾人아즉그詳細를接하지못하엿스나 在滿朝鮮人問題解決의一方策인것을確信예한다

岳、張兩軍衝突乎 岳軍은山東占領을計畫

(東京電) 某處着電에依하면 河南岳維峻軍은進路를三方으로分하야山東을向하고前進中인데 右는馮의內命에依하야山東에서張軍을驅逐한後國民軍의麾下로할作定이며一方張宗昌은過般來課稅의納付를强制하엿스나現在錦州知事의獨立等으로말미암아各地가此를拒絶하고잇슴으로張은河南軍과의衝突을覺悟하엿다는바或은更迭命令으로無事히奉天에歸來할는지도모른다더라

京奉電線切斷 吳馮密偵의所爲

(奉天發) 京奉線、山海關萬家屯間의電線이切斷되엿다함에二十三日午前十時發天津行列車는暫히反還하엿는데此는吳或은馮의密偵의所爲인것으로觀測된다더라

白軍編師中止 張氏의命令으로

白軍首腦『홀와트』及『쿠레루지』가白軍殘黨으로서一個師를編成할터이라고張作霖에게建言하야張은秦에二個大隊編成만을容認하엿던바其後時局에對한張의態度變更으로最近此의中止를『홀와트』에게命하엿더라

英、米態度의突變 附加稅率에對하야

(北京二十三日發) 自主權通過後英米의附加稅率에關한態度는突然히强硬히되어二十三日의委員會에서多數國은二分五厘增率을主張하고中國은稅率의確定을先決하기를主張하나各國은此에反對하고英米의硬化는自主權에서案提된外닭이더라

張學良 天津向發

(奉天二十四日發) 張學良은先般歸奉하야軍政을相議中이더니河南軍出動을爲하야今夕天津으로向하야出發하엿다더라

『카라한』來奉 二十五日午後에

(奉天二十四日發) 『카라한』氏는二十五日午後一時來奉할듯하더라

司法調査協議 來月十二日에

(東京電) 各國治外法權委員은十二月十二日北京에會集하야司法制度調査協議會議를開할터임으로長岡條約局長은右委員으로十二月十日外지出發할豫定이더라

歐洲列國에新分野 獨首相루엘氏의斷言

(伯林二十三日發) 獨逸國務總理『루엘』氏는聯邦議會에서演說하야가로되『로카르노』條約의結果歐洲列國間에新分野가생길지니即佛、白、伊、英四國은一致聯合하야獨逸에當하얏다 그러나條約成立의結果는獨逸에對抗하야歐洲의安全을保障하라하는條約을締結코자하는重大案은中止되얏다斷言하얏더라

無産政黨에對한 聲明書를內相이發表

(東京電) 二十四日의閣議에서는普選施行令案은原案可決하고直時上奏하엿스나 若槻內相은近近結黨式을擧할無産政黨의糾彈에對한政府의態度에關하야적어도國體의變革을企圖하는等過激皇室에及할事가有할에는斷然嚴重取締할旨를聲明하고一兩日中에內務省에서聲明書를發表할旨를陳述하야閣僚의諒解를求하는中이더라

海岸線引込料廢止

從來元山線으로부터의海岸荷揚場引込線에對하야는貨物取扱所를置하고引込料金一面一噸金四錢과小口取扱百斤에對하야金一錢을徵하더니今回赤田川改築工事의關係로貨物係가本線에잇던것을引込線의便으로移轉하는同時에右料金廢止를十二月一日로부터實施하게되엿더라

엑쓰靑年臨總

全北沃溝郡米龍里엑쓰靑年會에서는左記五大事件에對하야緊急히臨時總會를開催하고討議하얏다더라

◇討議
一、役員辭任及選擧의件
二、素人劇興行의件
三、夜學設備의件
四、全北聯合靑年會討論會參加의件
五、會務進行與否의件(沃溝)

九校職員 親睦會創立

平北博川郡內各私立學校에서는職員間의모임이업슴을遺憾으로녀여오든바去二十二日午前九時本郡嘉南面嶺美洞嶺美學院內에서九校의職員이會合하야親睦會의創立總會를열고左記事項을決議한後午後二時에閉會하엿다더라(嶺美)

◇決議
一、職員間互相親睦할事
二、各校와聯絡할事
三、地方發展을圖할事

◇委員
常務委員 姜世雄、朴勝茂、李文郁

富豪朴龍炫 寄付는말샏뿐
學校는廢止될地境인데 侍妾四五人에巡回行樂

康津郡鵲川面私立普通學校는大正九年春에設立하야今年에第二回卒業生을내이지라現下全校의形便을察하야보건대設立當時同面富豪諸氏가各各그힘을따라百圓乃至千圓醵出하야五六千圓의義捐金을同校基金으로하야私立學校設立認可를得하얏는데同面大地主朴龍炫은同校設立當時第一位로最高額千圓을적어노코他有志에게도勸告하든人士로申込當日부터『내것은來日쯤내오리다』하는口習이于今第三回卒業生이난때外지一錢의現金을支出치안함으로學父兄은此를問題삼아訴訟手續을履行하려하엿스나他有力者의勸止로中止되고말엇스며朴龍炫의不支出로因하야他寄附者도現金要求에는不應하고觀望만함으로學校는畢竟閉門하고말形便이라는데其理由는朴地主는少妾四五人을同面또는木浦等地에두고每日巡回行樂하기에忙殺中임으로面內子弟教育에는秋毫의誠意가업다고一般面民의批評이多하다더라(木浦)

錦明學院 婦女夜學休學

全南羅州邑內安息教會의經營인羅州錦明學院夜學部는羅州婦女를教養하기爲하야設置하고其間만한經費와努力으로羅州婦女界에貢獻이만흔바今般右夜學部를無期休學하얏는데此는經費의不足과適任教員의難得이第一原因이나當地不良輩가夜間通學하는婦女에게惡戲가種種잇서通行이困難함으로出席生이漸漸零星하야最近에는六七人에不過케됨도一重要原因이라더라(羅州)

南宮德洪氏 作人을愛恤

全北井邑郡古阜面江古里南宮德洪氏는今年秋監時에一般小作人에게對하야去年가든旱災에莫甚한苦痛을바드며이農事를지은것이라고作物의三分一만자긔가가저오게하엿다고一般小作人과附近人士들은氏의厚德을稱頌不已한다더라(井邑)

密陽靑年聯盟創立
諸事項決議한後委員會外지開催

去二十三日密陽郡靑年聯盟創立大會를靑年會館內에서六個團體의代表와數百의聽衆裏에서開하고左의宣言綱領及諸般議案을決議하고道聯盟參加에關한一切는委員會에一任키로하얏다더라

◇宣言(略)

◇綱領
一、우리는歷史發展에必要인新社會를目標로하고前進함
一、우리는互相親睦을圖謀하며正義의犧牲精神을涵養하기로期함

◇決議案
一、靑年團體組織의件
二、靑年教養의件
三、勞農運動에關한件
四、女性運動에關한件
五、衡平運動에關한件
六、少年運動에關한件
七、異流團體에關한件
八、集成學院內部、初同學校內部調査에關한件

執行委員會

密陽郡聯盟會執行委員會를密陽靑年會館에開하고諸般事務를處理中重要事項은道聯盟에參加할것과右聯盟에參加할代表鄭光浩尹玖禮張世英三氏를選擧後各部分擔은如左히定하고來委員會는三十日下午七時開前九日還送部에서하기로한後同七時에閉會하얏다더라(密陽)

庶務部 鄭光浩 申澈
組織部 張世英 鄭光浩
敎務部 尹玖禮 朴義貞 陳起準

自働車大割引
金浦品評會觀覽客에게

全金浦農産各種品評會와金浦四普校聯合學藝品展覽會를來二十八日로三十日外지三日間金浦公普內에서開催한다함은累報한바어니와同會에參加할他郡에서雲集하는觀客의便宜를圖키爲하야金浦自働部에서는從來永登浦、金浦每日三回往復(午前十時、午後一時、午後四時四十五分)兩便에서同時間에出張하야每日七八回式을臨時運轉하는外에通津邑方面에도臨時로運轉할터이며賃金도從來보다三割假量을引下하겟슴으로一層大盛況을呈하리라더라(金浦)

安岳講習新設

安岳明倫會에서는講習所를設置하고修業期間滿一個年無料로來十二月一日부터天道教室內에서開講할터인데程度는普通學校一學年以上(乙班)과三學年以上(甲班)인바願書提出期限은今月二十五日外지授業時間은午前九時로午後三時外지며願書取扱所는場山商會다더라(安岳)

永川家禽品評

慶北永川에서는去二十一日當地畜産組合主催로家禽品評會를開催하엿는데그翌日은抽籤外지잇서當地로서는初有의大盛況이엿다더라(永川)

盛況의開城藥令 人蔘만每日數千斤賣買

既報한바와如히開城藥令市는去十六日부터松都面兩城市場에서開始한以後로全鮮各地로부터藥材及其他物品이續續輸入되며地方商人의出入者도每日平均數千人에達하야同市場及開城市中은逐日殷賑하는故로藥令市氣分은漸漸濃厚하야가며本地産品인高麗人蔘賣買도每日數千斤에至한다더라(開城)

懸賞交通調査 開闢金海支社에서

慶南金海邑開闢分社에서는本月二十八日正午부터金海鋪路의交通을懸賞調査한다는데開闢新女性어린이三種雜誌中先金讀者에限하야는答案用紙를無代進呈하고讀者外에는答案用紙一枚에金十錢式添付申込한다는데申込期限은本月二十七日外지고當選發表日은同月三十日이라는데課題는左와如하다더라

◇課題
一、金海邑內鋪路(開闢分社前路)에서十一月二十八日正午十二時부터同午後一時外지한시동안에사람이얼마나通行하겟슴닛가(金海)

烏致院의經濟現狀 數字가證明하는우리의衰敗

忠南烏致院은道廳所在地인公州와淸州에來往하는咽喉地가되야交通이便利할뿐더러忠淸道에서는屈指할만한烏致院市場이有하야全朝鮮에有名한米穀及繩叺所産地로米穀의年輸出額은五十餘萬石에達하고叺의輸出額은年百萬枚에達하는狀態이다 그러나朝鮮人의經濟는날로衰敗하고달로破滅되야市街中重要하다는個所에는日人의所有地가되고建物도日本人의所有가되는狀態인데今에戶稅負擔及土地所有를數字에依하야보건대

一、戶稅負擔

去番國勢調査에依하면
朝鮮人戶數千四十七戶
日本人戶數三百十一戶
外國人戶數가二十九戶

此에依하야朝鮮人의戶數가日人戶數에比하야三十七割의多數를占領하얏스나昨年家屋稅納付額을보면
朝鮮人四四八圓五六錢
日本人一五五四圓四四錢

그러면三十七割이나多數를占한戶數로此와如히三十四割五分인小數의家屋稅를納付케되얏스니現今의狀態로繼續된다하면將來에露宿은勿論이어니와露宿할地面도無할것은事實이다 一例를擧하면學校費에充用하는家屋稅附加金이有하야日本人의所有家屋에게는附加치아니하고朝鮮人의所有家屋에게만限하야附加하게되엿슴으로朝鮮人의負擔額은增加되는것이다 그러든것으로昨年의家屋稅附加金이本稅一圓에一圓四十錢이엿든것이昨年에는一圓五十三錢으로增加되엿다한다 今年에는아직決定되지아니하엿다는面當局의말을들으면勿論增加될것으로推測할수밧게업다

二、土地所有別

烏致院地로말하면市街地의地面은九割이日人의所有요其他村落地인田과畓으로는若干잇슬뿐이요 新垈、竹內兩町의朝鮮人所有가幾許間의多數를占領하얏스나地價로보면日人의所有가朝鮮人所有보다二十二割이나多하다 地積과地價를表示하면

朝鮮人所有田四十四町三反三畝
同 畓五十七町四反三畝
同 垈八町一畝
以上地價三七、九三一圓
日本人所有田三十七町五反一畝
同 畓二十五町七反七畝
同 垈二十一町四反七畝
以上地價八一、三八二圓이며
外國人所有田五畝三十四步
同 垈六畝三步
以上地價四九圓七八錢이라

이로써보면日本人의所有는小數하나地價는多하고朝鮮人의所有는多數하나地價는少하니此에依하면日本人의所有는要地이요肥沃地라할수밧게無하다 그러나조치못한土地나마每年統計를보면年年히減少되는狀態이요現在의所有라하는것도大部分은日本人에게抵當權이設定되여잇다

烏致院에居住하는朝鮮人의生活狀態는大槪右와如히經濟가每日破滅되는것은數字에依하야서도可測할뿐더러本町吉野町若松町黃金町重要市街地는全部日本人의居住地이고朝鮮人의居住地는道路와下水溝도整理되지아니하야汚水에腐敗하는惡臭로因하야通行이困難한現狀이다 經濟의破滅을따러한모퉁이로몰려가는것은事實이證明하는바요時局이變動되는原因이라論할必要가無하나現在는現在러니와將來가可慮라더라(烏致院)

群山讀書會發起

群山에서는社會科學을硏究키爲하야十月十五日當地勞働靑年會館에서뜻잇는사람十餘人이會集하야讀書會發起準備會를開하고徐載圭君의司會下에簡單한趣旨說明과準備委員選擧가잇슨後左記事項을決議하얏다더라

◇準備委員
金柄 林時培 金一洙 朴永淑 金永敦 朱南楣 徐載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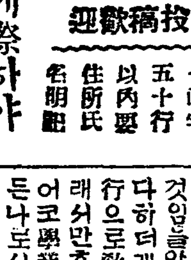
◇決議
發起人總會는來十二月一日午後八時로함(群山)

報恩三升公普 學年延長期成

忠北報恩郡三升面三升公普校에서는十月三十一日에同面內有志諸氏와一般學父兄으로부터同校學年延長期成會를組織하엿다는데本校는創立以來四學年制度에不過하야兒童의普通教育의不完分함에一般學父兄은遺憾으로지내오던바同面內崔鍾洙朱寅憲諸氏의發起로期成會를組織하얏는데決議事項과任員은左와如하다더라

一、本校學年延長을圖하기爲하야校舍增築에對한費用을分擔할件
一、分擔方法은財産程度에依하야等級別로醵出할事

▲任員
會長 崔鍾洙 副會長 朱寅憲
評議員 崔鍾根 李寅雨 李貞奭外五人
幹事 宋秉仁 魏明煥外十八人(報恩)



十四字 五十行 以內 要 住所 氏名 明記

撤學歸鄕에際하야

◇나는京城市內○○高等普通學校에在學中이든바子처업는事情에依하야 不得已學業을撤廢하고鄕村으로도라가지안흐면아니되게되엿다 學業을밧기에너무도渴望하든나로서 眼眶間오날은撤學歸鄕케됨에際하야 나는우리學父兄의新覺醒을促하기爲하야 一般學生의決心과自省을爲하야特히나와가든處地에잇는나의學生동무의參考에供키爲하야 나의늣긴바 그대로不滿이나마 쓰기를躊躇하지안는다

◇나는本是困窮한家庭에서자라낫다 그래서돈은아주困難하엿다 그러나敎育은아주重大한것임을알고千辛萬苦의障碍가잇다하더래도 나는나의生命과並行으로敎育을바더보랴하엿다 그래서만흔辛苦도겨거가면서도그어코學業을繼續하엿다 이러하든나로서 오늘이러케됨에는相當한理由가잇다 이理由를大別하야말하자면 첫재는自體의資力不足이요 그다음은外來思想의變遷이요또그다음은現代敎育制度의缺陷이다

◇아모리向學熱이 篤하다하더라도 그사람의學資가絶對不許한다면敎育을 바들수업다 萬一程度以上의 精力을다버낸다하면 그때는 肉體上惡病혹은精神外지도 疲鈍하여진다 그러치안흐면 漢江鐵橋로永訣의旅行을하게된다 이러할뿐만아니다 이와가튼辛苦로지내온卒業을한다하더라도 큰所用이잇지안타 限섯잘된다면 會社員이라書記等의남의奴隸밧게아니된다

◇그럼으로 적어도自立的自由生活을營爲하랴면 아니自由生活時代를創設하랴면 이가튼卑陋한敎育 즉使者의敎育 不正義의敎育 奴隸養成敎育을버서바리고 저鄕村에도라가 苦學한農民의속으로드러가는同時에農村靑年大衆의동무가되여 都鄕의協調와社會科學硏究에着力하는것이 더욱맛당하고 참다운義意가잇슬줄안다

◇나는이런理由로써勇敢히他人의嘲笑와勸責도不顧하고 나의固執대로 저시골로도라가게되엿다 아!學生諸君! 特히나와가튼無産學生諸君! 諸君은今番나의歸鄕을깁히생각하고우리의아페重大한問題인農村農民에게더욱親하여주기를바란다 또는諸君의充分한硏究잇는意見을듯고자한다 =(方向을바꾼朴魯洙)

全淸道庭球大會

慶北淸道庭球俱樂部主催로去二十二日全淸道庭球大會를開催하얏는데加入團體는A組가四組B組는九組로最後月桂冠은A組의金仁鍾金鍾洙B組의喜村平佐君에게歸하엿다더라(淸道)

私普期成會 憶岐에發起

咸南永興郡憶岐面은郡中央에在할뿐만아니라全地帶가曠漠한平野를成하야참으로全咸南의實庫라할지나教育機關으로는美陽里에잇는私立美興學校와梧洞에잇는私立光東學校와西中里에잇는私立鳳文學校(現今不耶無耶)의三個校가잇슬뿐인데其中美興光東兩校는尙今外지校務를繼續하나微微不振하야擴張에도多大한努力을要함으로一問題이던中有志李楨善朴濟淳尹喜晃鄭會東裵致煥朴東協諸氏는去十七日會同하야熟議한結果本月廿五日(陰十月十日)에憶岐面私立普通學校期成會發起人會를開하고大大的으로活動을開始할터이라는데現狀으로서推察하면잘進行될可能性이만타더라(永興)

稱頌만흔地主 光州柳朴兩氏

全南光州郡松汀面道山里柳秉泰氏(六六)는本來有名한慈善家의後裔로五六年前부터地稅는地主의負擔이正當하다自覺하고不良한小作人이地稅金을持來하야阿諛求容하면好言으로써斥之하는寬厚한心性과素志를抱한篤志家임은附近이共知하는바今年春間에光州郡松汀面道湖里有名한地主朴鳳柱氏의松汀面所在土地全部를買收하야今秋에執賭하기를前式보다歇하게執賭하얏다고柳氏의小作人은勿論松汀面一般小作人間에稱頌이藉藉하다더라(松汀)

全南光州郡光州面犬奇屋町富戶朴源升氏의親任同郡松汀面仙岩里(中洑)朴璜柱氏는氏의三寸의所有인松汀面及附近面土地千餘斗落을管理하는바今年에는風災와虫災가甚하야收穫이減收될뿐더러租의斤量도昨年에比하야輕減되엿는데不拘하고他人農場에서는每石正味百八十斤式徵收하되氏는每石에百七十斤式小作料를徵收함으로一般小作人은氏의特志를稱頌不已한다더라(松汀)

大成義塾新設

江原道金化郡近北面有志諸氏는當地有志李嘉用氏와兪丙淳氏及一般有志諸氏는子弟를爲하야우리社會를爲하야改良書堂이라도建設하지아니하면아니되겟다는斷然한決心으로七百餘圓의義捐을바더本月十五日에校舍의建築을落成한바뒤를이어一層더努力하야明春四月은兒童을收容敎授할터인바地方人士의熱誠을따러大成義塾은將來有望하리라하며더욱地方諸氏의協助를바란다더라(金化)

中學期成支部會

全北金堤中學期成會金堤面支部에서는지난二十二日午後一時부터邑校洞里明倫堂에서役員會를열고左記事項을討議하엿다더라
一、趣旨宣傳에關한件
一、會員申込書取纏에關한件

天道教人의 西鮮教役者會

天道教聯合會宣傳部主催로西鮮教役者大會를本月二十日부터京義線南川驛前天道教堂內에開催하고左記案件을議決하엿스며兼하야講道會를開催하얏다더라

◇決議
人乃天主義宣傳의件 義務實行의件 教會維持及擴張의件 教理硏究의件 修養에關한件 第二回聯合總會로부터喜捨金納付의件 天道教革新靑年會創立의件 本年度第二期年誠納付의件 第二回地方教役者會開催의件 宣傳部幹事巡回區域變更의件(南川)

坎井夜學開講

金浦郡郡內面坎井里夜學會는그洞里有志諸氏의發起로距今三年前에設立되야農村無産子弟들에게初等敎育을식혀實로農村文化向上에努力이多大한바今年에도去一日부터開學하고敎員李雲男文斗鉉兩君이熱心敎授한다더라(金浦)

華川市民運動

江原道華川郡靑年會의主催와一般地方有志의後援으로去十五日公立普通學校運動場에서마라손競走及自轉車徐速行과其他數十種類技及普校의學藝展覽農産品評會外지兼하야一般觀客은人山人海를이루엇다더라(華川)

兩郡聯合 都諸職查經會

本月十二日부터一週間成川江東兩郡聯合耶蘇教會都諸職查經會를江東郡區池面蓮里教會에서開催한바午前에는聖經을講하고午後에는會務處理에對하야討議하얏는데今年은教會職員中助事一人을減키로하고來年會集查經處所는江東郡高泉面道德里教會로定하엿스며今般查經會先生은沈益鉉牧師와李補楠長老이엇다더라(江東)

全州에定州樂隊

平北安州樂隊一行은湖南等地에巡迴中인대去二十一日에全州에來到하야二十二日부터二日間音樂演奏와活動寫眞大會를開催한다는데場所는公會堂으로하고時間은每夜七時로부터始作한다더라(全州)

大松金融貯蓄稧

黃海道黃州郡都峙面大松里區長李明鎬氏는里民의貯蓄心을助長하기爲하야大正十年度에大松金融貯蓄契를組織한後契員을多數募集하야每年二圓式을貯蓄한金額이一千餘圓에達하얏다는데同里에서는小資金이나마融通하기便利하다하며아프로더욱奬勵하야完全한金融機關이되리라하며契員은三十餘名으로役員은아래와갓다더라
契長 李明鎬 副契長 金東益
理事 玄基鎬 李斗鶴(黃州)

金組創立紀念

京義線車輦舘金融組合에서는去二十日平北金融組合創立紀念日을慶賀키爲하야當地普通學校內에祝賀會를開催하고餘興으로自轉車競走와假裝行列도잇섯스며더욱히車輦舘音樂隊의奏樂이有하야人山人海로大盛況이엇다더라(車輦舘)

運動選手慰勞會

咸南洪原有志들은去六日咸南物産品評會를利用하야咸南敎會主催로開催된咸南聯合運動會出張選手를慰勞하기爲하야去二十一日當地洪原公立普通學校內에選手慰勞會를開催하고宋泳近氏司會로여러選手에게賞品을授與하고金濟鉉劉鳳吉兩氏의祝辭가잇슨後閉會하엿다더라

晉州商業靑年 十九日創立

晉州에서는由來商業에從事하는靑年이不少하든바斯界의親睦과組織的行動이업슴을慨嘆하야오든바本月十九日午後八時市場組合事務所에서徐世完黃鳳九外二十餘人이會를創立하엿다는데選擧된委員은아래와갓다고(晉州)
徐世完 黃鳳九 金土彦 金守化 金萬斗 鄭致煥 金致玉

楊市幼年校施賞式

平北龍川郡楊市教會에서는去二十日同禮拜堂內에서幼年主日學校第十一回施賞式을擧行하얏는바少年少女들의滋味잇는遊戲唱歌와歌劇(春夏秋冬)이잇서八百餘名參觀者에게만흔興味를與하고四百餘名生徒에게等級을따라其施賞을하얏는데生徒는勿論參觀者들도無限한歡喜로閉會하얏다더라(楊市)

仁川蹴球大會 優勝은仁培軍에

既報=仁川蹴球聯盟主催의全仁川蹴球大會는豫定과가티지난二十二日午前九時부터市內山根町公設運動場에서郭尙勳氏審判下에擧行되엿는바最後優勝은仁培軍에歸하얏는데成績은아래와갓다더라(仁川)

◇第一回豫選◇
高麗 ○ 美笑團 ×
제물포 ○ 仁商 ×
仁培와花平團不戰勝

◇第二回豫選◇
제물포 × 高麗 ○
仁培 ○ 花平團 ×

◇決勝戰◇
仁培 ◎ 高麗 ×

第一回 全間島懸賞女子雄辯大會
大會期日 十二月四日五日
定員 十五人
參加申請 十一月三十日外지
主催 朝鮮日報社間島支局

活動寫眞大會
時日 陰十月十一、十二兩日間
場所 江華邑內禮拜堂
主催 江華女子靑年會
後援 江華中央靑年會 朝鮮日報江華支局

● 長有公校見學 慶南金海郡長有公立普通學校生徒三百餘名은去二十一日金海邑內各處古蹟을見學하고同日午後四時歸校하얏다고(金海)

● 廣告는個人의私感 既報慶北淸道郡大城面高樹洞金明玉氏에對하야惡地主다고廣告文을貼付한것은一個人의私感이오氏는地主로서의非行이업섯다더라(淸道)

● 金浦品評準備盛況 金浦郡農事奬勵會主催로郡內各面聯合各種品評會를來二十八日로三日間金浦公立普通學校內에서開催한다함은旣報된바어니와方今各面에서各種出品이每日還至하야다소諸般準備에晝夜紛忙中이며또同品評會의盛況을一層加하기爲하야餘興으로『라디오』聽受妓生舞踏綱渡豊年踏角力諸種의餘興이잇스리라더라(金浦)

地方經濟

密陽一年間 酒麴生産總計 二萬一千石 四十七萬圓

大正十三年九月一日로부터十四年八月末日外지自家用濃酒를除한外의密陽郡境內濁酒와麴子生産高는左와如하더라
▲濁酒生産高一四、五七六石價格三九三、○三九圓 ▲燒酒生産高五石價格一三五圓 ▲麴子生産高一、九一六石價格五四、○六七圓 ▲糧米消費高六、二○○石價格二三、四○○圓 合計二一、六七八石四七○、六四二圓(密陽)

中國向海蔘市勢

元山에서專혀中國人側의手로行賣되는海蔘輸出取引狀況을듯은즉요사이一時中國爭亂의影響으로奉天市場其他와의取引이업는狀態로頗히閉散이든바昨今二三日來中國商側에서急速히買付에着手하야荷를開始하나然이나今後의取引이順調인與否에對하야는相當히考慮할바이라故로右의關係上目下의市勢는如何間二十圓可量下落되야北鮮物上等百五六十圓이요當方面物上等百二三十圓이며並品百圓內外의呼價이라더라(元山)

元山組銀帳末

元山組合銀行本月十五日現在上半月帳末은預金總額三百二十二萬三千二百六十八圓이요貸出總額五百四十七萬八千八百三十三圓으로前半月에比하야預金五萬一千六百七圓과貸出四十二萬二千二百四十六圓이共히增加하얏다는데其內容은如左하더라
【預金】定期預金一六四、三七七一 當座預金六○一、九九七一 特別當座預金五五一、五七八一 諸預金四二五、九一七一 合計三二三、二六八
【貸出金】貸付金二五五八八九三三一 當座貸越四一一、四七九一 割引手形一○○五、九九三一 荷爲替手形七○三、六八七一 公共團體貸出七九八、七八四一 總計五四七八、八三三(單位圓)(元山)

◇寸鐵◇

【英陽】深夜三更에郡守私宅에侵入한日本人이잇섯다 警察署에서도알지마는모르는체 郡守도別無擧措, 다만模範하는者나警戒할必要가잇슬뿐
◇
【利原】利原西面事務所面長以下面職員一同은日曜日도아닌데面所를텡텡비우고成興品評會에갓다왓다고 아마面職員全部가成興品評會로總移動이되엿든게군 面도봉좀모르는面所로군
◇
【德川】現代에立身하는者는先山白骨의德이요 今後三十年만지나면共同墓地山禍로亡한다는迷信者가잇다 迷信을할터이면希望이나부처서北邙山이明堂이라고나하게

朴在鎬氏長逝

私立晉州一新女子高等普通學校理事朴在鎬氏는同校設立에多大한貢獻이有할뿐아니라晉州靑年會를爲하야廣大한運動場外지寄附하고其他社會公益에적지안한貢獻이잇든바數月前偶然病床에서呻吟하다가去十八日同郡奈洞面三溪里自宅에서年收一千五百石土地를其兄弟貧族에分配하는遺言으로長逝하얏는데享年이五十六歲라더라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Wednesday, Nov. 25th, 1925.

If we have not quite in our own minds outward comforts will do no more for us than a golden slipper on a gouty foot. —Bunyon.

ENGLISH FOR STUDENTS.

Let Dogs Delight to Bark and Bite.

Let dogs delight to bark and bite,
For God hath made them so;
Let bears and lions growl and fight,
For 'tis their nature too.

But, children, you should never let
Such angry passions rise;
Your little hands were never made
To tear each other's eyes.

Isaac Watts.

He Prayeth Best.

FAREWELL, farewell! but this I tell
To thee, thou Wedding-Guest!
He prayeth well who loveth well
Both man and bird and beast.

He prayeth best who loveth best
All things, both great and small:
For the dear God who loveth us,
He made and loveth all.

Samuel T. Coleridge.

Pippa.

The year's at the spring,
The day's at the morn
Morning's at seven;
The hillside's dew pearled.

The lark's on the wing;
The snail's on the thorn;
God's in His heaven——
All's right with the world!

Robert Browning.

If I Had But Two Little Wings.

If I had but two little wings
And were a little feathery bird
To you I'd fly, my dear!
But thought like these are idle things
And I stay here.

But in my sleep to you I fly:
I'm always with you in my sleep!
The world is all one's own,
And then one wakes, and where am I?
All, all alone.

Samuel T. Coleridge.

英文欄 學生英語

沙里院饑救後援會에 罹災同胞殺到哀訴

주린창자를움켜쥐고와서 사람을좀살려달라고호소

봉산군(鳳山郡)일대가년부년수재(水災)로인하야 일반농민(農民)이도뎌히살수가업서서 혹은남북만주(南北滿洲)와 로서아(露西亞)로향하야가며고국강산(故國江山)과 일가친척을 리별키슬어워 눈물을흘리며 날마다 사리원뎡거장(沙里院停車場)에서 비극(悲劇)이 연출된다함은 여러번보도한바 근일에와서는 그곳으로도갈수가업고이곳에서도 살수가업게된 리재민(罹災民)수천명은날마다 사리원조선긔근구제회후원회(沙里院朝鮮饑饉救濟後援會)에와서 주린창자와쓰린가슴을움켜쥐고사람을좀 살려달라는그애소에는 후원회원(後援會員)는물론아니라근처에사는사람들까지라도 비감한생각을 억제할수업게 되엿슴으로 후원회에서는 급히경성긔근구제회(京城救濟會)로교섭하지안을수업다고하야이십삼일오후두시에발표하엿다더라(사리원)

『寶城全郡은 三本亂離에亡한다』

얻지나부닥기든지 동요새지생기엇다 日人地主의苛酷한反影

전남보성군(全南寶城郡)에서는『본자디주(本字地主)에게농이다죽는다』거니『삼본란리(三本亂離)에보성이망한다』거니하는동요(童謠)가 류행되여 인심이 흉흉중이라는데 그리유를들으면 일본사람디주라면 누구를물론하고 소작료비싸기로 말할것도업거니와 그중에도 더한층 군산송본(群山松本) 영포판본(榮浦坂本) 목포산본(木浦山本)이

세사람의 소작료는더무나가혹한 『웨구리』를 하여서 도모지 타협이되지 아니함으로 그와가튼욕심을채워주면농민은 다굶어죽는수밧게업다는뜻이라 한다 그러면그사람들의 소작료는 얼마나빗사냐하면 송본과판본의사실은 본지에여러번 보도하엿거니와 이제산본의 사실만을소개하면 그토디는본래 보성리범래(寶城李範來)의소유로서수십대

상속하야 오든년장이라 따라서 소작료도비교뎍 다른토디보다빗사지아니하얏든것인데 금년에 전긔산본이란일인의소유로팔렷는바 작년보담 삼사할이상의감수가된농형임에도불구하고 도로혀삼사할이상의 증가로 소작료를검뎡한바 수확전부를다준대야 오히려 부족할뿐아니라 긔왕에는토디소재디 부근에서수봉하든것을

금년에는 삼십리나되는 률포(栗浦)까자 운반하라하며 동양텩식회사식(東拓式)으로 두개에난호어 오라함으로 모도가 소작료한섬을 쌀가마니(叺)두 ... 대로응하고는 도뎌히 살수가업겟슴으로 농촌인심이 크게동요되얏다더라(보성)

四十名의小作人 駐在所前에殺到

무리한일본인디주에게 부닥겨못살겟다고호소

전남순텬군 해룡면해창리(順天郡龍海面海倉里)에서는 일본인디주중도진삼랑(中島辰三郎)의 소작인사십팔명이 소작료불납동맹(不納同盟)을하엿슴으로순텬농민련합회(農民聯合會)에서는 선후책을 강구하기위하야위원까지 파송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하엿거니와 지난이십일 오후팔사경에 해창리 소작인사십명은 돌연이 동면 경관주재소(警官駐在所)에 쇄도하야수석순사조판부장(早坂部長)에게대하야 말하되 우리소작인들은 무리한디주에게 소작료 락집(落執)을당하야 소작료 불납동맹까지할뿐만아니라 어린처자까지 죽을경우를당하야도당신네들은인민을보호하는책임이잇는것도불구하고 모른는톄하여야만 된단말이냐고무른즉 조판부장은 이문뎨에대하야 됴사한결과 충분히알게되얏스니 경찰 서장에게도보고를하고 디주에게도 잘교섭하야 해결책을구할터이니 도라가달라 함으로 소작인들은동십사반경에 도라갓다하며 그외일아침에 지급히 순텬경찰서장에게이러한 참상을보고하고 이문뎨의 해결책을연구하는중 이라하며 소작인측에서는 이문뎨가해결되기까지싸홀터이라더라(순텬)

孕婦背夫逃走

본부는차질생각도안코 태아의해업기를바란다

경북영양군 입암면산해동 이백팔십이번디 류연각(慶北英陽郡立岩面山海洞柳淵珏)(三三)의 처 김분악(金粉岳)(二九)은지난음력윌경에 무고히집을나가 간곳을모르든중이제듯건대 그 이웃집에머슴으로잇든 본적을 경북안동군림하면 사일동에돈송모(慶北安東郡臨河面沙日洞宋某) 가 유인하야 다리고 갓다는말이잇는바그본부되는류연각은차질생각도안코다만복중에잇는아이만 해롭게안키를바란다더라(영양)

一族四名이投身

련락선을타고오는일녀가 그아들셋을다리고자살해

이십사일새벽두시경에관부련락선(關釜連絡船)일등승객중에비명의 가족이두신자살을하엿다는데이에대하야추뎐(秋田)사무원은 말하되그런날밤에 일본하관(下關)에서 어떤부인과의 미인이 세명의어린애를다리고승선하야 일등실실호실에 자리를잡엇든일이 잇섯는데 그들의수하물이라고는 권혀 업섯스며그유품으로는 어린애의『만도』와 모자뿐 그어머니되는 부인의 『하오리』와화장품외에는아무유서한장도업섯다하며선거(船渠)에는 대판시주길구텬왕사뎡(大阪市住吉區天王寺町)길뎐일자(吉田一子)(三〇) 동 일랑(一郞)(五) 이랑(二郞)(六) 삼랑(三郞)(三)동이라고는하엿스나 그것이 본일홈인지아닌지하며그외실내를됴사하엿든바길촌당부일부(吉村貞夫亂夫)라고 긔록한조희조각이흘럿섯는데 그것은 어린애들의 모자속에 너헛든것인듯함으로이것이 그의 본일홈인것을알수잇다하며 그외에는 아무것도증거될만한것이 업스며 오족돈십원을너흔봉투에『보이에게』라고쓴것밧게는아무것도업섯다하더라(부산뎐)

相愛少年團을 極力沮害

학교당국에서 부형을시켜서

강경공립보통학교에서 소년단회원에대하야 학교에 다니겟스면 소년회에들지말고 소년단에들겟스면 학교에다니지말라 한사실은 본보에루보 하엿거니와 서는 이에대한대책을 강구코자 문뎨가점점확대됨을따라학교에직원회를열엇다는데 그결과는 극비밀에부침으로 자세한것은 몰으나 듯는바에의하면 교장궁모례(宮脇禮)씨는소년운동을하라면 첫재당국의절대후원(絶對後援)하에 조직하고군수(郡守)면장(面長)이단장(團長)으로 지도(指導)자가된다면생도전부(全部)를소년회에입회케 할것이로되그러치안는바에는박멸하여야하겟는데사회에서성가시럽게떠드니 학부형에게 일임(一任)하기로하자하엿다더라

脫退를勸誘

학부형을불러서 소년회는아동에게 해독을주는회라고

강경공립보교에서 소년단에대한책임을학부형에게던가(轉嫁)식히려한사실은전항에보도한바와갓거니와 지난이십일일 오후한시에 궁모례씨는 소년단에입회한생도의 부형만 청하야노코 회의가 절대비밀이라는 구실로 신문긔자의 참석을거절하고 각급 담임훈도가 자긔담임급의생도의부형을마터서이야기하엿다는데 도라나온부형에게듯건대소년회는 아동두뇌(兒童頭腦)를착란(錯亂)케하며본능뎍급(本能的級)의 아동에게는말할수업는 해독을끼처주는회인데 자뎨를 그런회에그냥두시겟소? 만일 그냥둔다면 단연이퇴학을식힐터이니 엇지하겟소? 소년회에리해(理解)업는부형들은그자리에서 소년회에 가지못하게할터이니 공부식혀달라는말을 하고도라왓다더라

苛酷한壓制에

매를마즈면서도 애소하는생도들

학교에서 도라나온 부형들은집에도라나오는길로 아이들을 큰몽동이로 따리면서 웨그런회에들어서 공부도하지안코 놀기만하느냐 래일부터라도 회에가지말라고함으로 불구하고 도로혀소년회는 아이들에게 자미잇는회요 그런보다공부도 더잘할터이니 소년회에 그냥단이게하여달라고애소(哀訴)하는현상은참아볼수업더라

『어대까지든지 努力하겟소』

江景相愛少年團 幹部 梁基重氏 談

금번 보통학교에서 소년단에대한행동은 참으로 분압니다 회원중에 보통학교생도가 삼분이이상을 차지한고로 소년단이해산(解散)될것가트나 우리는 어대까지든지 부형에게 소년운동을리해(理解)하도록권유하야승낙을 마들작정이며 보통학교생도외에도 단원될소년이 만흐니단원이 업서해산될리는 만무합니다(강경)

青松에不時雨

일반은걱정

경북청송디방(慶北靑松地方)에는 지난십육일부터 철이아닌비가오기시작하야 십구일 오후까지 개이지안함으로 타작을못한농가에는 손해막심할뿐 아니라 일반의걱정이만타더라(청송)

執達吏가橫領逃走

교묘히국경을넘다가 신의주에서톄포되야

대구디방법원 안동지텽(大邱地方法院安東支廳)에서 집달리(執達吏)로잇든김명한(金明漢)의집에집행하려갓다가마츰재무자가갑흘돈이 다준비가되얏슴으로 돈일천삼백원을 주는바그것을바다가지고 그길로 어대로가버렷다 하야 안동경찰서에서는 사방으로됴회를 하야대수색을 행하든바 지난이십일에 신의주(新義州)경찰의손에 테포되야 신의주경찰서순사가 포박을하야가지고 지난이십이일 오전한시경에 안동에도착하야 곳안동경찰서에 인도하얏다는데 밤중에 특별자동차를타고 멀리서죄인을 다리고왓슴으로 당디인사는 모다무슨중대범이나아닌가하야한참놀랏다더라(안동)

蟻蜂幹部放免

설유를밧고무사히

지난이십이일 충남 대뎐군유성(忠南大田郡儒城)의봉청면희림시충회해산시에구금되엿던간부(幹部)리성춘(李成春) 리원래(李源泰)박광희(朴廣熙)삼씨와 회원리강하(李康夏)씨는이십삼일오후까지취됴와설유를밧고무사방면되엿다 더라(대뎐)

帽兒山遊廓에大火

오십여호를일시에소실

지난 이십일일 오후세시삼십분에 중강진(中江鎭) 모아산유곽(帽兒山遊廓) 으로부터 불이나서 부근일대에잇는 상뎜오십여호를 소실케한후 오후다섯시경에 진화하얏는데 때가소란한때임으로 그곳인심은 매우흉흉하고 경계도 자못엄중하엿다더라

正衛團의對策講究

도부조합원의해직사건으로

시내형평사정위단(衡平社正衛團)에서는금번경성도부조합(京城屠夫組合)원다섯명이 홍종환(洪鍾煥)의선동으로해직을당한외에 지난이십이일에도 김정환(金聖煥)리소돌(李小乭)송정관(宋聖寬)외세명이해고되엿슴에대하야 이를적극뎍으로 대항하는동시에 홍종환에대한 선후책을강구하기위하야 이십이일 오후여덟시반부터 임원회를 개최하고 해직된조합원 삼십명에대한손해배상금을 청구할일과 권선각형평단데에 통문할일과 동대문서에 구금된 동지다섯명과 밋그가족을 구호키로결의하엿다는바그구호위원은아래와다갓더라

◇救護部 宋景根 朴永圭 李英培 金士爽

時祭ㅅ테殺人!

가해자는즉시자최를감추고 경찰은엄중히그범인을수색

강원도이천군 룡포면문동리 운화촌 각포동(伊川郡龍浦面文龍里雲溪村谷浦洞) 강룡국(姜龍國) 의집에서지난음력사일에살인사건이 잇섯는데 이제그내용을드른즉 산지리동에(山旨里東谷)에서시게(時祭)지내러왓든 강치삼(姜致三)(三五)이가그동리사는 류동원(劉東元)(四〇)이와 음력삼날 하오일곱시경에 강애국의 집에서 싸우다가주인의제지로고만 두엇는데 류동원이가 엇지뭄시 마졋던지 그익일즉사일에 사망한것이라하며 가해자 강치삼은 이소식을 듯고도망하야 버리엿슴으로 당디경찰서에서는방금 범인을 엄탐중이라더라(이천)

大膽한少年窃盜

경북의성군안계면(慶北義城郡安溪面)출생으로 선산군구미방면에와서 일뎡한 주소가업시도라다니는 김달수(金達洙)라는 열다섯살되는 아이는 절도상습범으로 삼사차나 경찰의취됴를 바닷스나 어린아이라하야 항상훈계방면을하엿든바 금월초순경에는 출생디인 의성군안계면 모의집에드러가 현시이십여원어치물건을 절취하여가지고 구미로 다려와서 어물상을하는 일인 충뎐(沖田)의집에 침입하야 현금륙백원을 절취하여 가지고 대구로도망하야 잡화오백여원어치를 사가지고 금천으로가서 그곳시장에서 장사를하는것을알고 금천경찰서에서 톄포취됴중이라더라(구미)

墮落한女性

감추엇든비밀은 긔어코들처나서 男便은離婚을宣告

戀愛에서 淫奔으로

칫겨울쌀쌀한 찬바람은 룡군뎡(統軍亭)을 범어황량에 부대긴시가를 삿삿치뒤흔들고 어스름초생달은 희란봉허리를지나 허영에 뎌인인생을 귈철히 조롱하는지난십칠일밤의주성(義州城)한모퉁이 그윽한집에서 희비의대활극을 연출한사실이잇다『잉태한 녀자를합부로 녹다리면무사할줄아니? 사람을 죽이면살인이야』하이

추잡한년 은사회를위하야 매장하는것이조하-이년리호하자ㅡ」하는통야단법석이 난판에 오고가는사람들은 무슨조흔구경거리나 생겻나 하고사람바다를 일우다십히 대혼잡을일우엇섯다 이케그일의 원인과주인공들을 탐문한바에의하면 원적을 창성군창성면서부동(昌城郡昌城面西部洞)에두고 현재의주외주면 구성동(義州郡義州面舊城洞)칠십일번디에 거주하는리명선(李明善)의장녀당년십칠세되는쏫다운미인

리국수네 (假名)로서어릴때부터 학교에다니다가 작년에 의주공립보통학교에 뎐학한후남보다 우수한성적으로 금년봄에동교를졸업하고가뎡의사정이든지?자긔의남모르는참지못할무엇이 잇섯든지? 집안에김히감추여 어엽분 규중처녀처럼 련진란만스럽게 그날그날을 지내엿스나 그리면에는 복잡한암흑에서 허영의생활을 계속하여왓섯다 이케그사실의 내용을보도하건대 의주우편국(義州郵便局)의우편물을

운송하는 신의주복부자동차부(新義州服部自働車部)운뎐수김〇〇(金〇〇)(二四)과지난학생시대부터비밀히정을통하야 사랑의 꿈속에서 달큼한생활을 계속하야 아츰의피는꼿과 저녁의도는달을 허송한적이 업섯다 룡군뎡그윽한 수풀을것하고 장래의허영을속살거림이파연몃번이런고?사랑의멀도는도수에도수를듸러하야사랑의씨는미인해속에서움독고자라기시작한지가벌서반년이지낫섯다 그러나잇다금

불파가티 한계집의 야욕은 멀ㅣ 신의주에잇는 한사람의정량으로는 너무도부족하엿다 그리하야 지난칠월에 당디사는청년 정상룡이라는이와혼례케되는 사람을속여달이십구일에 혼례식을 거행하야다시 새살림을 하야오든중그래도 구정을못이즘이든지? 정부김〇〇과는 계속하야 비밀히정을 통의연만 아니라 발서해산과가 림박한사실이

폭로되매 남편뎡상룡으로부터 리혼하자고 야단친것이 전긔 희활극의일막이엿다… 과연 이두사람의장래는 엇지될는지?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긔한 김〇〇이라는자는 본처까지 잇스며 아들까지잇는자로 음분처녀를의롱한것이라고…(의주)

白晝昌德宮前에 短刀强盜가出現

창덕궁녀관의귀금품강탈 범인은양복입은젊은사람

시내에 강도사건이 또발생하얏다 지난이십일 오후다섯시경에 창덕궁(昌德宮) 부근을 인력거로 지나가는 어떤귀부인이 금비녀를 쏜면히 어떤자가 뒤로나타나서 쌔앗고저 함으로 이에놀란 귀부인은 물론이요차부까지 달겨드러서 반항을하엿더니 그괴한은돌연단도를 쓰집어내어서 위협을하고 필경에는 금비녀를 강탈도주 하엿다는데 범인은양복입은청년이며 본뎡서와종로서는 협력하야 비밀리에 범인수색에활동중이라더라

乃父乃子

부친은자선가요 아들은효자

전남무안군 장산면상룡리(務安郡長山面上龍里) 김영태(金永泰)(六〇)씨는근본부터 마음이온순하고 부모에게 효성이지극하든바 그부친 김봉한(金奉漢)(六九)씨가 삼년전부터 득병하야 백약이 무효로지난 음력구월구일에해남군 우수영(海南郡右水營)에서 가족도 보지못하고황텬의손이되매 김영태씨는 원편무명지를 쓰너서피를 흘려너헛든바다시소생되야집안사람에게 통지하야모다모와天코유언을한후뎐명에는 엇지할수업시 또다시텬명하얏는데 그유언에 소작인에게 인심을일치말고 아모쪼록 소작료를 공평히하라하얏다하야동리 사람들은모다 그부자의 심지를칭송하야마지아니한다더라(목포)

晉州共進會 去益複雜

차도달수업다

진주물산공진회(晉州物産共進會)는대성황중이로대 경상남북도(慶尚南北道)와 밋전라남북도(全羅南北道)로부터 속속모혀든군중은 밤낫십여만명에달하야 각려관(旅舘) 유식뎜의 만원은 물론이오 시내각려염가와 학교등에수용하고도 부족하야 길거리에서 로숙(露宿)

大盛況의 新聞講演

晉州支局主催 신문의사명을말하는 사자후에청중은열광

본보 진주(晉州)지국주최의신문대강연(新聞大講演)은예정부터 동군진주면옥봉리(晉州面玉峰里) 진명학원(振明學院)에서 열리엿는데 뎡각전부터 다수군중이 모혀스며 본보진주지국장 강달영(姜達永)씨의 간단한개회사를 비롯하야 본사김준연(金俊淵)씨의 신문의사명 이라는연뎨로『다가튼사실을 신문이보도하지마는 신문의

관찰비판 이각각다름으로엇더한신문은소수계급을위하야현대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사회를그대로옹호하지마는엇더한 신문은 현대자본주의적사회가 불합리(不合理)한것을 만인평등(萬人平等)의 사회로 개조코자 로력하는 대중해방(大衆解放)운동의편을들어 각각그사명을발휘하는것이라는

말로부터 자본주의의정데와 밋그로말미암아생기는 구주(歐洲)국제연맹(國際聯盟)의 소위평화운동이라는표리(表裏)사실과 사회주의의정데와 밋그내유과 또는그로 말미암는약소민족해방운동(弱小民族)의필연성동을들어 약한시간동안 사자후(獅子吼)를 부르지저 만장청중의감동을만히주엇스며 다음리종텬(李鍾天)씨가

등단하야 열변을토하다가립석경관의주의(注意)를바드면서 속론을 약삼십분계속하고 동십일시에 폐회하얏더라(진주)

收監된 自働車會社長

여러가지독직죄상이 판명되엿다고

일본대판자동차회사(大阪自働車會社)의부정사건에 다유하야 일본동산 화재보험회사(日本動産火災保險會社)와 대판시내각자동차회사의 독직사건으로 십월륙일에 구속치안으로 괴소되엇던대판승합(乘合)자동차회사사장판정이태랑(坂井伊太郞)은 이십사일아츰대판디방 재판소각남(角南)예심판사의 손에 취됴를 바덧는데 동일오후세시에 드듸어수감되엿더라(대판)

西村豊은 被殺이分明

이십사일에야 판명이되얏다

그보ㅣ 야구계(野球界)에명성이자자하든만텰(滿鐵)사원서촌풍(西村豊)(三三)의죽은원인에대하야 이십사일에 의외로타살의증거가 판명되엿는데『와이사쓰』에피흔적이 력력하고또칼가튼것에 여러곳이 쐬커진것을보면타살이 확적하다하야 방금증거보충과 범인수색에 대활동중이라더라(조취뎐)

平壤東拓 六割作料

소작인의불평이 매우비등하다고

평양의대아인선교리(船橋里)에잇는 동양척식회사 평양출장소(東洋拓殖會社平壤出張所)의소유수뎐 오십뎡보에 소작인(小作人)의수는 오십여명인데소작료는 륙할(六割)이나 징수하얏슴으로 소작인들은 거개비싸다는 불평이잇서오든바근자에와서혹엇던사람에게는오할만을징수하얏다는소문이잇기때문에더욱불평을품으짓는중이라더라(평양)

窃盜가巡査刺傷

도적은필경톄포

지난이십삼일 오전 두시반경에 뎡주서(定州署)고송(高松)순사가절도를 잡으려다가 도리혀절도에게구타와 피자(被刺)를당야가슴과 기타여러곳에중상을당하고현장에너머젓든바급보를접한 서원들이 달려와서적한을테포하얏는데 그자는 뎡주면서주동(定州面西州洞)사는리봉옥(李鳳玉)(二五)이란자로성내동(城內洞)미상최신호(崔信浩)의 삼신의집에서 소미절취한 것을 자백하얏스며 부상한 순사는약일주일간치료를요하리라더라(뎡주)

何厚?何薄?

주류밀조자두명을잡어 한명은방송한명은벌금

경남통영군(統營郡)군속(郡屬) 송유영(宋有榮)은 지난 팔월경에 동군이운면아양리(二運面鵝陽里)에서 주류밀조자(酒類密造者)두명을 발견하얏는데밀조자중에서 한명은 노하보내고한명만 벌금삼십원에 처하얏슴으로 부근일반인민들은 말하기를 『범죄자를 벌하는것이도덕이요처벌한것이 범령이라하면 편향한것은배임(背任)이라』하야소위 관리배의행동이 넘우도애매모호하다고비난이자자하더라(거제)

畜犬의罪로 飮毒하고自殺

벌금을물린다고을려대는 순사의말에겁이낫든모양

전북정읍군 덕천면우덕리(全北井邑郡德川面優德里)에 거주하는민치업(閔致業)(六三)씨는동면주재소순사 최인영(崔仁永)에게 호출을당하야갓다 가도라와서곳 양잿물을마사고 사십일 동안을 신고하다가 필경 절명이되엿다는데 그내용을드른즉 금년음칠월삼십일에 최순사가 그동리인구를됴사차로 민치업씨의 집에를간즉 민치업씨는 업는고로그집녀인다려

밧주인이 어대갓느냐고 뭇는때에 그집개가최순사에게달려들매 순사가개를또친후 그개를곳업새여 버리라고 그녀인에게부탁하며밧주인이오면곳주재소로 오라고하고 주재소로도라와서 멧날이지나도 민씨의집에서개도 업새지안코 민치업도오지안코 다만그구역구장 송국환(宋國煥)을식혀 최순사에게 무사케하야달라는소개만보낼뿐임으로그런

사나운개 는업새버리는것이올타고 대답하여 보냇스되 민치업씨가 그개를 업새지아니하는고로 최순사가 음팔월십삼일에 민치업을주재소로 불러다노코 자긔가그런악구(惡狗)를 죽여바리지아니하니이제는경찰서로보고하야 벌금을물려야 하겟다하고 민씨의재산됴사를 하얏든바 민씨는 벌금을물게된것을걱정한나머지 탓이든지자긔집에세타하고나온

양잿물을 가지고그뒤산 자긔의 선산하에가서 마시는것을그집사람이발견하고곳집으로 다려다노코 동면면장김병계(金炳啓)씨의 응급주선으로 민씨를교자에태여서 동읍내 정읍의원에 입원치료케하얏스나 민씨는듯지안코 도라와서 여러날을 신고하다가 음구월 이십삼일에 죽엇다더라(정읍)

逃走한姦婦

의부의집에서발견

전북김뎨군청하면동지산리(全北金堤郡靑蝦面東之山里) 황승종(黃昇鍾)의안해는지난십륙일밤중에 간부김동원(金東元)과 보퉁이를가지고 도망하엿슴으로 그남편 황승종은동면경찰관주재소에 수색원을 데출하고수색하든중이든바 지난칠일에 김뎨군월촌면봉리(金堤郡月村面月鳳里)최순선(崔順先)이라는자긔의 의부(義父)의 집에서 발견하야 차저왓다는데 부동하야 달어난김동원은 아즉것종적이묘연하다더라(김뎨)

年年이逐出될 三面의火田貧民

면경비도판출할수엄슴터

평안남도덕천군잠상면(平安南道德川郡蠶上面)과 개천군외동면(价川郡外東面)과순천군봉명면(順川郡鳳鳴面)과의 삼면은 동서남북간 륙칠십리이상 정원형(正圓形)으로 태령(泰嶺)이 쪽둘러막히고 동서로 대동강상류(大同江上流)가 관통되야 덕천군의 남단(南端)인 잠상면과 개천군의 동단(東端)인 외동면과 순천군의북단(北端)인 봉명면과의 삼면이 정자형(丁字形)으로 련접(連接)한 산오벽디(山奧僻地)인데 그중앙에 잠상면 사둔시(沙屯市)라는 적은시장이잇서서 물물교환의 편리를 줄뿐이요 삼면의호수 이천백여호에 일만일천아백여의 인구(人口)의 생활상태를 관찰하면 교육긔관 으로서는 봉명면에사립소학교 한개소가잇서 유지의 노력으로 유지하여가고 삼면의 림야는 거진 국유림야(國有林野)임으로 삼면의주민은 다대수가 국유디에 화뎐(火田)을경작하야 감자와조와 옥죽서등으로 근근히련명하여 간다는데 삼면별로 최근됴사에 의하면다음과갓다

種別 \ 面別	蠶上面	外東面	鳳鳴面
面積(方里)	六九·四	八·〇七	三三·四
里數	六	五	五
戶數	七九三	八〇六	六五六
人口	四,六四三	四,三〇七	三,三四二
國有林	九,〇〇〇二	二,八四〇	三六,〇〇〇
私有林	一六	三三三	五,〇〇〇
國稅地方費	四,九七〇	二,六三五	二,一三三
歲入	二,六五〇	二,〇四〇	一,九六六
歲出	二,六五〇	二,〇七〇	一,九六六

이상수자가사실을증명하는데그중에는내일것은해마다국유림의조림성적을따라화뎐민이그반치

山中逢賊

동포한명참사 중국인강도에게

안동선봉황성현대보(安奉線鳳凰城縣大堡)에서서쪽으로약십리쯤되는혁가보(赫家堡)부근산중에서 조선동포한명이 엇던자의독수에 무참한살해를 당한사실이잇섯다 그는평안북도 태천(平安北道泰川)에원적을두고현재봉황성시가 박봉걸 정미소(鳳城新市街朴鳳杰精米所)에고용으로잇는배락구(白洛九)(四三)로맛해전에봉황성으로반이하야그쳐와가티 칠십당년의 로모를모시고 멸한실되는 어린아들을비롯하야 네명의 자녀를다리고지내나 원래빈한한 가뎡이라 벌다른 밥도가업고 다만전긔

정미소에 서품파리를하야그날그날의 품산으로 수다한식구가 간신히호구를 하는터에 그나마 텬족이잇섯든지 백미두섬을딸앗든차 다시근처에 청채하야봉텬표(奉天票)로백칠십오원을 가지고벼(籾)를사려 전긔혁가보방면으로 지난구일에 떠난후몃날이지나도록 도라오지아니함으로 그가족은 궁금히야래인거쳐에게 소식을 매양탐문하든바 전긔산중에서 엇던조선사람이 참살을당하엿다는 말을듯고 행불행을알수업서 창황히가본즉 엇더한자의소위인지 분명한

자긔남편 이참혹한죽엄이되야 너머저잇는데 이금보를듯은 안동현일본령사관에서 경관과촉탁의사가 현장에 림검한결과 돈을가진것이 원인이되야 물욕에 눈이어두운 중국사람의 독수에 마즌것이 분명하다는바 죽은지 어느듯삼사일이지나 범인의종적은 오리무중에 사라저 알길이업스며 그유족되는 로모와 어린처자는당장 하날이문허진듯 어되의지할곳업고 럭목한련내 옥중중국으로도로에 방황한다는데 이정업는그곳에서 이로야의운명이장차엇지될는지그물상한정경은참아볼수업다더라(봉텬)

主人의돈을

훔쳐서밥갑흘주엇다

본적을 경상북도영주군 풍긔면(本籍慶尚北道榮州郡豐基面)에두고 강원도평창군평창면 천변리려인숙 영업(江原道平昌郡平昌面川邊旅人宿營業) 김백옥(金伯玉)의집에 거주하는 방완석(方完錫)(三〇)은 절도죄로 평창서에 톄포되여 취됴를밧는중인데 그자는전일에 려인숙하는 김하경(金夏卿)의 집에서 류숙하며 주인의집에서 대나제현금이십오원을 절취하야 주인의밥갑으로 오원을주고 남어지는유흥비로 소비한후 김백옥의집으로 주인을옴기엿는데 이웃정쥬리집에 사닙이업는틈을타서 집입하야 현금이십오원 오십전을 절취한것이 발각되엿다더라(평창)

淸州郡에 短刀强盜

동민이써려잡어

충청북도 청주군문의면 미천리(忠北清州郡文儀面米川里)송병식(宋秉植)의집에는 지난이십일일하오 십일시경에 단도(短刀)를가진강도한명이 드러와서 주인송병식이더러 금전을 내여노라하며 죽일터이라고 협박을하는중에 마츰옷방에서 자던사람이 소리를질름으로 그강도는 목덕을이루지못하고 다려낫스나 그동리동민들이 또차가서 몽동이로 뚜다려잡은결과 범인은 머리에중상을 당하엿스며그곳으로 오는길에 어대서 검은생이(黑羔)한마리를

훔처다가 동구밧게매여 노흔것까지 쌔서노핫슴으로 이금보를들은 청주경찰서 에서는 즉시 자동차를가지고가서 다려다가 청주자혜의원에서 응급치료를한후 대강취됴를 하여본즉 그는 본래전남강진군고금면(全南康津郡古今面)에본적을두고 일뎡한 주소가업시 도라다니는건재오(千在五)(三四)이라더라(청주)

휘파람

▲일컨에봉텬(奉天)청안 조선리뎜 봉후관에는중국군병수삼십명이달려들어작란쇠테 작부를압나로구타하며 창문을깨치는등 행패가무쌍하엿다 ▲그래서주인은 그근처에잇는 일본경찰관 파출소에 사실을알하고 보호를좀 청하엿더니알지나인에게대한사건은중국교섭서(交涉署)에 직접 교섭을하라더라고? ▲다시 경찰본서에를간즉 거긔서는 파출소로가라고하얏다 다시일본 헌병대에를차자갓더니 월권이니 할수업다고 군인답게 말하더란다 ▲보호를청하려간 사람의 신세야말할것도업지마는 이러저리 밀우는그들은 힘이업슴인가 성의가업슴인가

假王 【十五】

白眼子 譯

우리가 머궐에이르럿더니 머포가터지며 라팔을불어 떠드는소리가 련디를진동하는 듯두귀가먹먹할즈음에 시신이 좌우에 느러서서 나를영접하야 잇스는 정식으로왕위에나아가룡상에안고 나의올흔손편에는내친왕또그뒤에는 공작이안고 외인편에는사대좌가섯고 그가압줄로도렬형이가서잇섯다 왕위에안저 만조백관의 조회를 밧고침실로드러가게 되얏는데 사대좌와 도련형이 뜬언제어되를가던지나를따러다니엇다 몸이피곤하야 의자에털석주저안젓더니 사대좌는 당베데를쓰내여 한대부처물고 나다려축하하는말은 업섯지마는 몸가지는태도가 매우만족하여 보이엇스며『여보시오 오늘가튼날은영국으로 도라가시더라도 평생잇지못할터이일이올시다그러나내친왕과더부친근하여서는아니됨니다 정말도련에가 생기면엇지하게요 공작의얼골이 오늘은더ㅣ식검엇든것도 무리한것은 아니올시다』하는소리를듯고 『무척엽분녀자든걸』하고웃는말을쓰내엿더니 사대좌는 소리를쌕지르며

『녀자소리는 고만두시고떠나시게되엿소』하는 룡병스러운말이나아왓다 나는한숨을 푹수이며 『비』하고대답하는수밧게업섯다 그때에는오후다섯시가되얏는데일두시만되면 나는다시 영국신사나도빈씨밧게아니되겟다고조롱비슷이말하엿더니 사대좌는 싱글싱글우스며

『그때에고(故)라도민씨나 되지아느시면 도로혀운수가 조흔일모양이오 이곳에게신 동안에는 내가일분동안이라도마음을노치못하겟슴니다 전당에서 무슨소식이왓는지 공작이뷔인 방으로드러가서 그긔별을 혼자읽고나아가서정신이진사람가티된것을 잇슬마음도업서

『나는가기로준비가다-되엿소』하엿더니 사대좌는 자리에안즈며

『이곳을 떠나는 련장을 한장써노면 거긔다가 서명을하십시오 파수병이 뎐하의친필이아니면누구던지 통행을못하니다』

『여보시오 사대좌나는위조하는사람은아니오 다른놈에는 무엇이든지 써겟지마는 남의필적까지 모본하는것은못하겟소』하엿더니 사대좌가 주머니속에손을느허 웃지럼웃지럭하야 왕의필적을쓰내여가지고

『이것을 모본하지못하신다면내가쓰겟소』

『그럴시는 사대좌가나보다나흘터이니 사양말고그냥쓰시오』

『그런말슴 그런딴은이가로국왕의필적을 모본하고 도련형이를바라보며

『뎐하에서 취침하시고래일아홉시컨에는 누구던지 드러오지못하게해 오늘큰일을 치르시고피곤하시니까 자네그만하면 아라듯지』

『비압니다』

『만일공작이와서 알현하겟다면 이러케말하게 왕족이 아니면못드러온다고 하라는말일세』

『그런말을하면 공작은속이좀상할터이지오』하고 련형이가우서바렷다

『자네가 아라듯는수작일세이밧문이 우리가 업는사이에열리고보면 자네는방문이 열렷다는소식을 권하지못하고죽을것일세』

『내게글가르처줄줄은 밧서지번줄압니다』하고대답하엿다 사대좌는나를보며

『큰외투로 몸을 둘러싸고 납작하고 나아간다고합시다』

『그러치만 일백이십리나될려갈병출로 오늘밤안장에 나를호위한 운동모자를 쓰시고나의당번말이업슬것갓소』

『중간에서 가러탈터이니 념려마시오』

도련형이가 손을 내여밀며 『만일……』하니까

사대좌가 소리를쌕지르며그런사소한 인사는할때가 아니야어서가십시다』하고 나아가는대정문으로 나아가지안코 벽에은혈로 들린문을열고나아가며

『이컨시절에 내가이문으로만히다녓소』하엿다

우리는 오륙백척이나되는 좁은길로 나아가서 큰문이하나다다르는데 대좌가열쇠로열고 나섯더니 곳대궐뒤의 조고마한공루이엇섯다 그밧게서 엇던사람이 조흔말두필을가지고 기다리엇승으로 우리는 뭇지안코올라타고 아모또롱은근한 골목으로만지나갓는데 외투로 얼골을가린이나쐈고 운동모자를 푹숙이여씀으로 나의롱은머리 한터럭이밧게서 보이지아니하엿다 그러고 내둥은 몹시쇠부러안는사람이보면 봇그럽을만치 보기실흔태도로 가게되엿다 아즉 한편성들은 대관식을 축하하는와마로 분주하게 떠들고다니며환영하는 청당의종소리는 뜬치지아니하엿다 그때는 여섯시반인데 아즉도 어둡지아니한때 내중에는 성문이갓가왓다 대좌가만이말하기를

『종을준비하고게시오 만일파수병이 무어라하면 어름막어야하겟슴니다』함으로 나는엄해차던륙혈포를 쎅붓드럿다